

격려사



권오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찬란한 이정표가 될 한국고분자학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세기 전,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학문의 기틀을 세우고 국가 산업화의 동력을 제공해 온 한국고분자학회의 여정은 그 자체로 위대한 도전과 개척의 역사였습니다.

1976년 고분자 과학의 불모지에 첫 씨앗을 뿌린 이래, 학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학문적 토대를 다지고 기술 자립을 이끄는 든든한 구심점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1977년 국내 최초의 고분자 학술지인 「Polymer(Korea)」를 창간하고, 과총과 함께한 영문학술지 육성 결실로 「Macromolecular Research」가 2002년 SCI에 등재되는 값진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Macromolecular Research」를 세계적 수준의 SCI 등재 학술지로 육성한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은 대한민국이 '소재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국고분자학회는 이제 단순한 학문 공동체를 넘어 국가 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자 전자, 의료용 고분자부터 최근의 에너지 고분자와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학회가 운영하는 7개 전문 부문위원회들은 첨단소재 연구와 산업 혁신을 연결하는 강력한 중심축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삼성, LG, SK, 한화 등 주요 기업들과의 긴밀한 산·학·연 협력을 통해 리튬 이온 배터리, OLED, 탄소중립 기술 등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해 온 점은 매우 뜻깊은 성과입니다.

고분자가 수많은 단위체의 결합으로 새로운 물성과 가치를 창출하듯, 연구자와 산업계의 유기적 연대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떠받치는 강력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난 5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계산과학을 접목한 새로운 혁신의 시대를 선도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귀 학회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여정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권오남**